

2025
중3-1
비상

2025 중3-1 국어 비상 | 2(1) 문장의 짜임과 양상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문장 성분과 홑문장·겹문장의 개념을 묻는 문제, 제시된 문장에서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장 성분 및 홑문장·겹문장의 개념, 겹문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1.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주성분이다.
- ② 독립어는 독립적인 성분으로 감탄사가 포함된다.
- ③ ‘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에서 주성분은 세 개이다.
- ④ 부속 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⑤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 관형어이다.

2. 다음 중 주성분 중에서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 ① 개미가 기어간다.
- ② 순옥이는 학생이다.
- ③ 수아가 밥을 먹는다.
- ④ 보름달이 환하게 떴다.
- ⑤ 유빈이는 부반장이 아니다.

3. 이어진문장의 의미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와서 운동회가 취소되었다. - 원인
- ② 동생이 우는데 네가 좀 양보하렴. - 배경
- ③ 네가 청소를 하면 나는 설거지를 할게. - 조건
- ④ 열심히 준비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 대조
- ⑤ 돈을 길에 버릴망정 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 선택

4.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

- ①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 ② ‘그가 떠났음’은 안긴문장이다.
- ③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다.
- ④ 안긴문장에 조사인 ‘을’이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 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5. 다음 중 이어진문장의 연결 관계가 다른 것은?

- ① 시간이 지나면, 미움도 사라진다.
- ② 몸이 아파서, 나는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 ③ 마음이 행복하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 ④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그녀를 보내야만 했다.
- ⑤ 꽃이 피려고,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신유형

출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문제, 안긴문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이어진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제시된 문장에 문법 개념을 적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보기>의 부속 성분 개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그 노인은 대단히 무뚝뚝했다. 그는 방망이를 아주 열심히 깎았다.

- ① 관형어: 1 부사어: 3
- ② 관형어: 2 부사어: 2
- ③ 관형어: 3 부사어: 1
- ④ 관형어: 0 부사어: 4
- ⑤ 관형어: 1 부사어: 2

7. <보기>에 사용된 목적어의 개수는?

<보기>

따사한 봄볕은 나를 자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내일은 방에 꼭 틀어박혀 책을 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먹으니 오늘은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8. <보기>의 문장에 쓰이지 않은 문장 성분은?

<보기>

열심히 노력한 우리 반이 체육대회에서 결국 우승을 했다.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 ④ 관형어 ⑤ 부사어

9. 다음 중 겹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바람이 종일 몹시 분다.
- ② 화단에 꽃이 활짝 피었다.
- ③ 정현이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된다.
- ④ 가원은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 ⑤ 순옥이는 어제 스터디 카페에서 그 친구를 봤다.

10. 다음 중 이어진문장이 아닌 것은?

- ① 동생은 놀고, 나는 공부한다.
- ② 채린이는 발이 빨라서 달리기를 잘한다.
- ③ 아라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주화가 미웠다.
- ④ 도현이는 동생과 자주 싸우지만 동생을 사랑한다.
- ⑤ 하민이는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권투를 한다.

11. 문장의 종류를 출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때 나머지와의 다른 것은?

- ① 장미가 꽤 피었다.
- ②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③ 나는 2번이 정답임을 알았다.
- ④ 동생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다.
- ⑤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는 잠을 잤다.

12.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은 모두 겹문장에 속한다.
- ② 문장의 짜임으로 구분할 때 관형어의 수가 기준이다.
-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④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
- ⑤ 이어진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13.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모두 (2가지) 고르면?

- 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②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 ③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 ④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가게로 들어갔다.
- ⑤ 비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14. 안긴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은?

- ① 토끼가 귀가 길다.
- ② 다연이는 댄서가 되었다.
- ③ 채희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 ④ 우리는 아빠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 ⑤ 민지는 예진이가 만든 쿠키를 먹었다.

15. 문장 성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립어를 생략하면 원래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의미 차이가 달라진다.
- ② 목적어와 보어는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 ③ 관형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등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이다.
- ④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 ⑤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 ①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 ②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성분으로 감탄사가 포함된다.
- ③ '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에서 주성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 총 세 개이다.
- ④ 부속 성분은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어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다.

2. [정답] ⑤

주성분 중에서 서술어 '되다'나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유빈이는'은 주어, '부반장이'는 보어, '아니다'는 서술어이므로 적절하다.

- ① '개미가'는 주어, '기어간다'는 서술어이다.
- ② '순옥이는'은 주어, '학생이다'는 서술어이다.
- ③ '수아가'는 주어, '밥을'은 목적어, '먹는다'는 서술어이다.
- ④ '보름달이'는 주어, '환하게'는 부사어, '떴다'는 서술어이다.

3. [정답] ⑤

'-(으)ㄹ망정'을 사용하여 양보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는데'를 사용하여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으)면'을 사용하여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지만'을 사용하여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4. [정답] ①

<보기>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② '그가 떠났음'은 다른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처럼 쓰이므로 안긴문장이다.
- ③ <보기>는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④ 안긴문장인 '그가 떠났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⑤ <보기>는 '그가 떠났다.'와 '우리는 알았다.'가 결합하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5. [정답] ④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①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③ '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6. [정답] ①

<보기>에서 관형어는 '그', 부사어는 '대단히', '아주', '열심히'이다.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②

<보기>에서 목적어는 '나를', '책을', '아침을'이다.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②

<보기>에서 보어는 찾아볼 수 없다.

- ① 주어는 '반이'이다.
- ③ 목적어는 '우승을'이다.
- ④ 관형어는 '노력한', '우리'이다.
- ⑤ 부사어는 '열심히', '체육대회에서', '결국'이다.

9. [정답] ④

'고양이가 우는'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모두 홑문장이다.

10. [정답] ③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면서, '주화가 미웠다.'라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 ①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② '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⑤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1. 정답 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②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③ '2번이 정답임'이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④ '밥 먹듯이'라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⑤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2. 정답 ②

문장의 짜임으로 구분할 때 문장 안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13. 정답 ①, ③

- ①은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③은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②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목적(의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고'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4. 정답 ⑤

'예진이가 만든'이라는 관형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 ① '귀가 길다.'라는 서술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②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홀문장이다.
- ③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 ④ '아빠가 오시기'라는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15. 정답 ⑤

단어의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단어가 문장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 '볶다'의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볶은 노을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문장에서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 ①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목적어와 보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이다.
- ③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이다.
- ④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